2026년 3월 9일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 ETF 전략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온다

ETF Analyst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2026.03.09 I ETF Issue

진격의 코스닥 액티브 ET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ETF Analyst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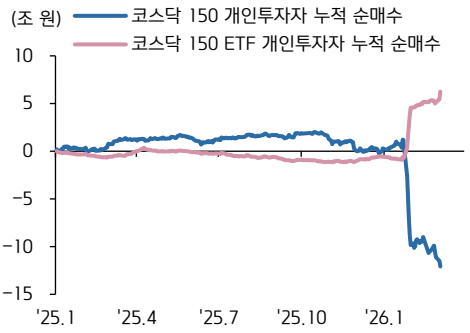
Issue Brief

코스닥 액티브 ETF가 온다

ETF의 시장 수급 영향이 확대된 현재, 때마침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임박. **3월 10일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 2곳 운용사에서 최초 출시** 예정이며, 이어 3월 17일 한화자산운용도 코스닥 액티브 ETF를 포함한 3종의 주식형 액티브 ETF 출시를 준비 중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의 2종 코스닥 액티브 ETF는 모두 'KRX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 현재까지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ETF들은 대부분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고 있으며, ETF 수급 영향도 코스닥 전체 약 1,800여 개 종목 중 상위 150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반면 3월 10일 출시되는 2종 ETF들은 모두 코스닥 전 시장을 포괄하는 'KRX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채택해 **기존 코스닥 ETF들 대비 개별종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전망

코스닥 150 및 코스닥 150 ETF 개인투자자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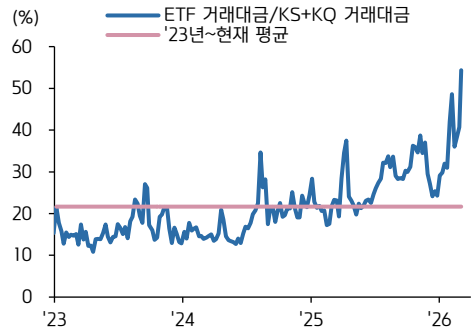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코스닥 ETF 상장과 수급 파도

국내 ETF 시장이 400조원에 육박하며 ETF 수급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 특히 코스닥은 거래대금의 80%를 개인이 좌우하는 시장으로 이 개인 자금이 ETF로 집중되면 LP/AP 활동에 의한 영향이 코스피 대비 클 수 있음. 실제 연초~2월 개인은 코스닥 ETF에 약 5.9조원을 집중 매수했고, 동기간 기관 순매수(10.4조원)의 대부분은 금융투자(12.5조원)가 주도

특히 이번 코스닥 액티브 ETF는 코스닥150 밖 중소형주를 편입하는 동시 액티브 방식을 채택하므로 **기존 패시브 ETF와 달리 ETF 수급이 개별 중소형주 가격에 외생적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큼**(TIGER 휴머노이드로봇 ETF 사례). 이는 그동안 ETF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코스닥 중소형주에 새로운 수급 유입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TF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증폭될 여지도 있음

거래소 대비 ETF 거래대금 비중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주) 주간 누계 거래대금 기준

한국 액티브 ETF 시장 확장 중

'20년 말 2조원에 불과했던 국내 액티브 ETF 총자산은 올해 2월 말 97조 원을 기록했으며 이제는 100조 돌파를 목전에 둠. 상품 수는 '20년 14개에서 2월 말 289개까지 증가

특히 2025년 이후 '주식형' 액티브 ETF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운용자산이 지난해 '24년 말 4.7조 원에서 '26.2월 20조 원으로 약 320% 증가했고, 상품 수도 동 기간 34개가 추가됨.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의 주도 업종/테마의 변화 주기가 단축되는 환경 속에서 올해도 코스닥 ETF를 비롯한 **다양한 ETF들이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 시장에 선보일** 전망

* 참고자료:

알파(α)를 찾는 ETF 시장 (2025-09-12)

코스닥 액티브 ETF 가 온다

3/10일 2종 ETF 코스닥 ETF 출시

코스닥 액티브 ETF, 3/10일 동시 출격

ETF의 시장 수급 영향이 확대된 현재, 때마침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된다. 3월 10일 타임폴리오, 삼성액티브 2곳 운용사*에서 최초 출시 예정이며, 이어 3월 17일 한화자산운용에서도 코스닥 액티브 ETF를 포함한 3종의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상장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타 몇 곳 운용사에서도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타임폴리오는 바이오, 2차전지 등 코스닥 대형 섹터를 중심으로 신성장 테마 종목을 발굴해 편입. 삼성액티브는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ESS), 로봇 등 성장 산업에서 성장주:가치주 비율을 7:3 비중으로 집중 투자 계획

타임폴리오와 삼성액티브의 **2종 코스닥 액티브 ETF는 모두 'KRX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채택**했다. 기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ETF들은 대부분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이며(코스닥 150 선물, 코스닥 글로벌 등도 존재), 이에 따라 **ETF 수급 영향은** 코스닥 전체 1,800여 개 종목 중 **상위 150개**(시가총액, 유동성, 업종분포 등 고려한 대표 150개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번 신규 ETF들은 모두 코스닥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KRX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코스닥 ETF들 대비 개별 종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월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상승했지만, ETF 중심의 자금 쏠림으로 인해 코스닥 150 종목들과 중소형주 간 괴리가 발생했다.

*액티브 ETF는 기초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기초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ETF. 따라서 기초 지수는 비교 지수(벤치마크)의 역할을 하며, 비교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투자 종목과 매매 시점을 펀드매니저 재량으로 운용

KRX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전 종목을 포괄하는 지수라 커버리지가 넓다. 더욱이 '액티브'로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코스닥 전 종목을 기초 유니버스로 종목들을 재량껏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기존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ETF 수급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기는 셈이다.

시장 활성화 관점에서는 코스닥 시장 전반의 균형 있는 확장을 불러올 수 있다. 기존 소외되었던 코스닥 중소형주의 신규 발견 및 투자자 관심 확대로 인해 **상위 150종목에 집중되었던 정부 정책의 수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코스닥은 시장 특성 상 변동성과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패시브 중심이었던 코스닥 ETF 시장이 액티브 운용 경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목 옥석가리기가 더 면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출시 예정인 국내주식 "액티브" ETF 라인업

코드 부여일	종목 명	상장 예정일	비교지수명	운용사 명
2026-02-10	TIME 코스닥액티브	2026-03-10	KRX 코스닥지수	타임폴리오
2026-02-11	KoAct 코스닥액티브	2026-03-10	KRX 코스닥지수	삼성액티브
2026-02-23	PLUS 코스닥 150 액티브	2026-03-17	코스닥 150 지수	한화
	PLUS K 제조업핵심기업액티브			
	PLUS 글로벌저작권핵심기업액티브			
2026-02-26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		미래에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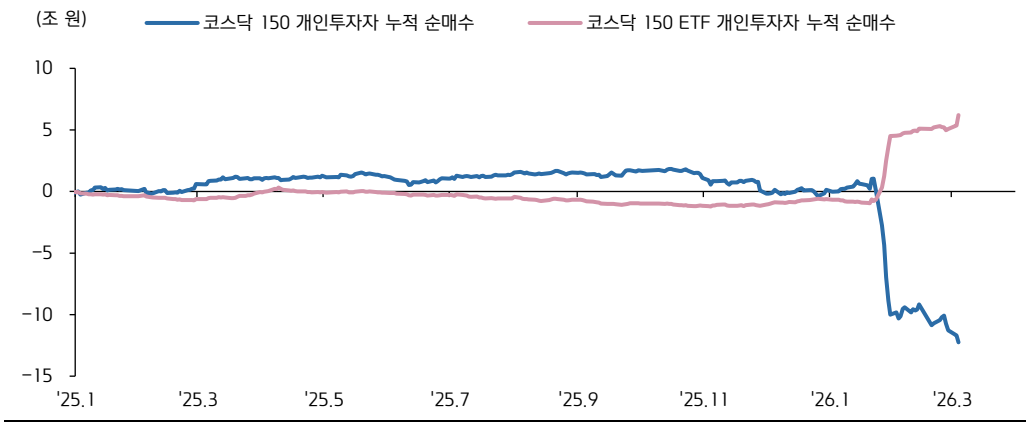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기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ETF

티커	ETF 명	상장일	AUM (억원)	총보수 (%)	3 개월 평균 거래대금	1M 수익률 (%)
A229200	KODEX 코스닥 150	2015-10-01	77,148	0.25	6,064	+11.6
A233740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2015-12-17	51,795	0.64	7,479	+20.6
A232080	TIGER 코스닥 150	2015-11-12	23,350	0.19	1,158	+11.4
A270810	RISE 코스닥 150	2017-06-16	5,808	0.18	193	+11.4
A233160	TIGER 코스닥 150 레버리지	2015-12-17	3,207	0.32	273	+21.0
A354500	ACE 코스닥 150	2020-05-07	2,680	0.02	96	+11.7
A316670	KIWOOM 코스닥 150	2019-01-22	807	0.15	35	+11.6
A450910	SOL 코스닥 150	2023-01-31	704	0.15	15	+11.5
A461580	TIGER 코스닥글로벌	2023-06-29	468	0.15	13	+12.5
A461450	KODEX 코스닥글로벌	2023-06-29	353	0.09	11	+11.4
A304770	HANARO 코스닥 150	2018-08-14	316	0.20	16	+11.4
A301400	PLUS 코스닥 150	2018-07-05	149	0.15	11	+11.6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주)2026-02-27 종가 기준

코스닥 150 및 코스닥 150 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코스닥 ETF 상장과 수급 파도

ETF 시장 영향력 확대

ETF의 시장 파급력, 과거와는 다른 궤도로 진입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ETF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히 국내 ETF 시장은 단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TF 수급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 국내 ETF AUM, 2월 말 387.6조원 기록. '11년 이후 매년 약 30%씩 증가
- '25년 6월 200조원을 넘기기가 무섭게 '26년 1월 초 300조원 돌파, 이후 2달도 되지 않은 현재 400조원을 목전에 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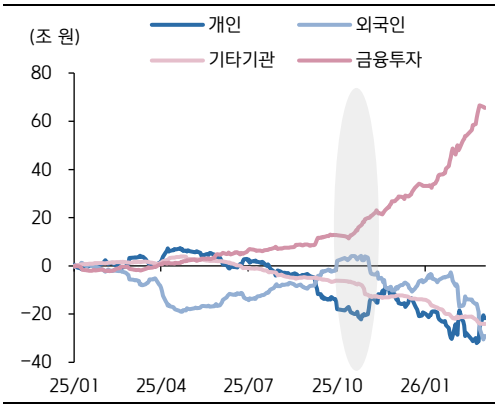
즉, ETF 유입 자금이 LP/AP 채널을 통해 개별주식 매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ETF 고유의 메커니즘*이 시장을 흔들 만큼 ETF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상황이다. 실제로 ETF 설정 확대가 주요 동인 중 하나로 작용한 금융투자** 순매수가 2025년 이후 누적 약 65조원('26.2월 말 코스피+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 기타 기관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물론 금융투자 매매에는 차익거래, PI 직접투자, 기타 프로그램 매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금융투자 순매수가 개인 ETF 매수세로 인해 발생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올해 1~2월처럼 **개인 ETF 매수가 급증하는 구간에서는 ETF 경로의 영향력이 과거 대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 ETF 매수 규모가 클수록, AP의 현/선물 헤지 매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① 개인 ETF 매수 → LP/AP ETF 매도(공급) → 현/선물 헤지 매수 → LP의 ETF 재고 소진 시 AP는 운용사에 ETF 추가 설정
② 장중 ETF NAV-시장가 괴리 확대 → 유동성 공급 활동에 의한 ETF 매도 + 현/선물 헤지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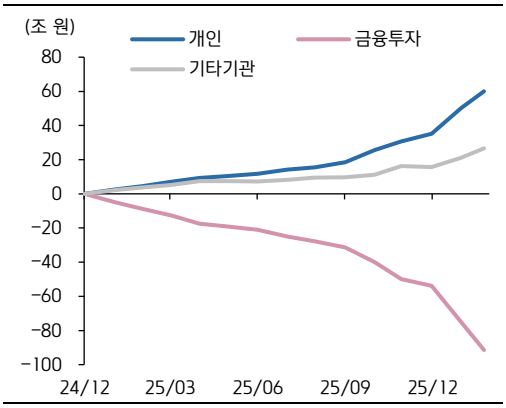
**금융투자: 증권사의 자기매매 동향. 즉,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모든 거래 포함. ▲ETF LP/AP의 설정·해지 과정에서의 현물 바스켓 매수/매도(헤지) ▲현선물 차익거래 ▲증권사 PI(자기자본투자) 주식 투자 ▲프로그램 비차익매매 (인덱스 리밸런싱 등) 모두 해당

투자주체별 KS+KQ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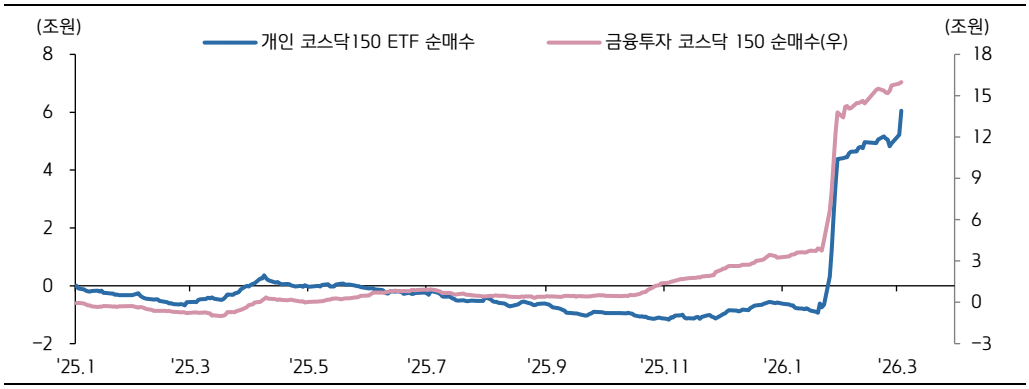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1월 이후 누적

투자주체별 국내 ETF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 1월 이후 누적

개인 코스닥 150 ETF 및 금융투자 코스닥 150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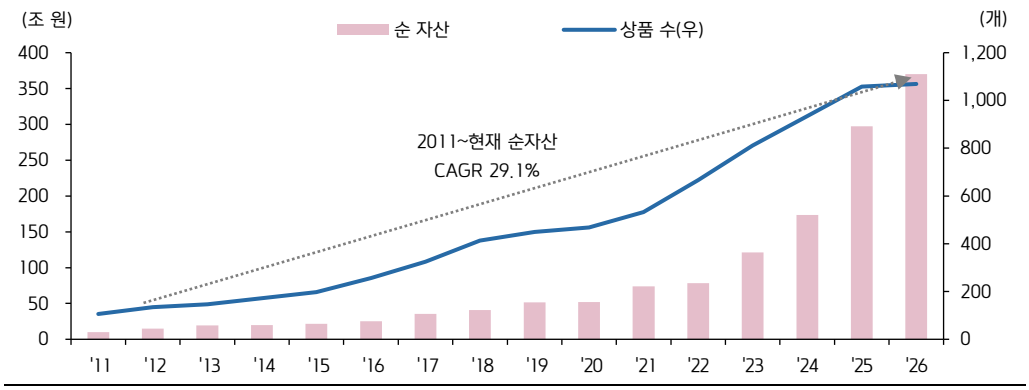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거래소 대비 ETF 거래대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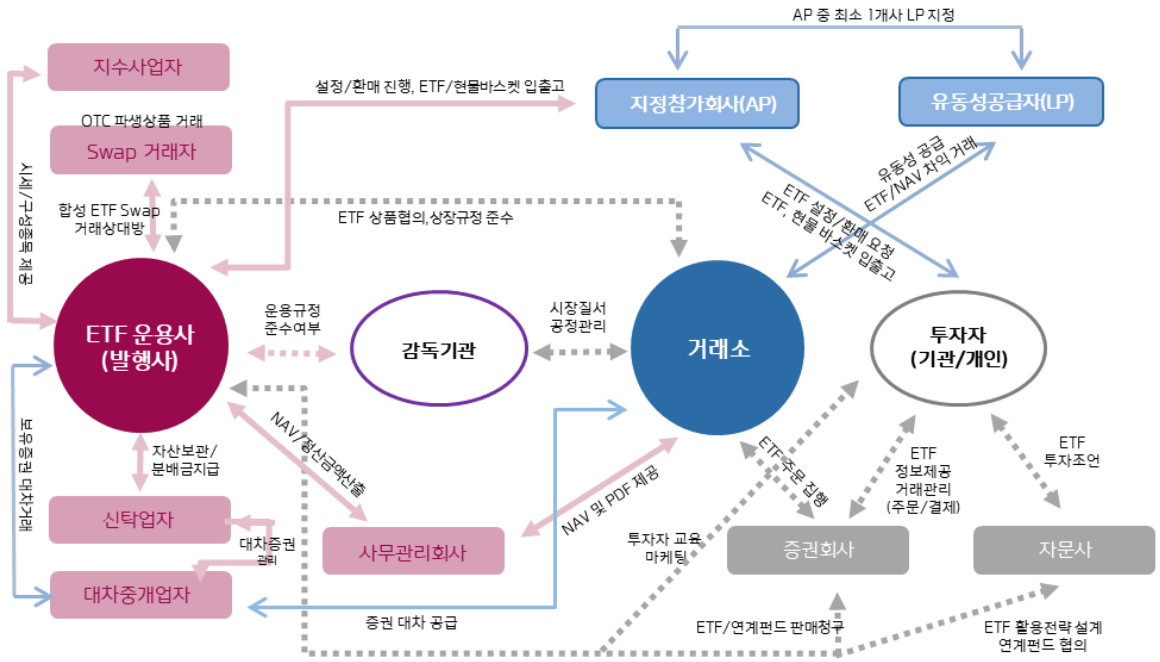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주) 주간 누계 거래대금 기준

국내 ETF 시장, 폭발적으로 확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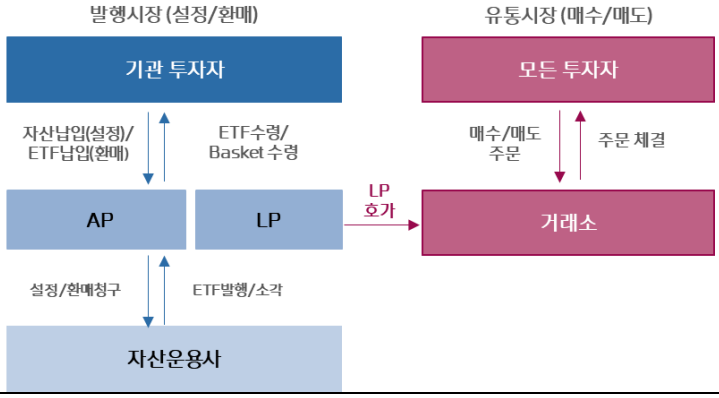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생태계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ETF 시장 구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ETF 수급 영향은 중소형주에서 더 민감

ETF 수급 영향, 중소형주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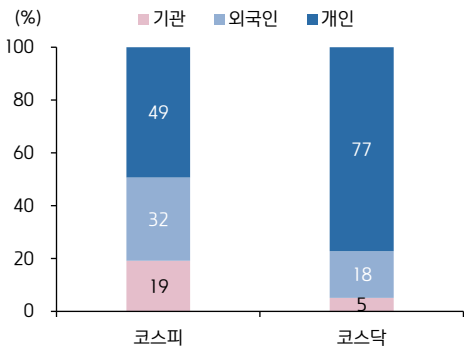
시장 단위로 쪼개 보면, **ETF 파급효과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서 더 클 것이다**. 수급 주체별로 코스피는 거래대금에서 개인의 비중이 50%인 반면, 코스닥은 80%로(최근 2년 누적 기준) 시장 수급의 대부분을 개인이 좌우한다. 이 개인 자금이 ETF로 집중될 경우 금융투자 경로를 통한 현물 매수의 상대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연초 이후~2/23일까지 코스닥 지수가 약 25% 상승한 구간에서, 개인들은 코스닥 개별종목을 오히려 순매도 또는 소극 대응한 한편, 코스닥 ETF에는 약 5.9조원을 집중 매수했다. 동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은 10.4조원을 순매수했는데, 그 중 금융투자가 12.5조원을 매수한 반면, 연기금 등 여타 기관은 오히려 2.2조원을 순매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의 출시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 영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150 지수 밖 유동성이 얇은 중소형주가 그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전망이다.

코스닥 중소형주가 ETF 내 다수 포함될 경우, 기존 코스닥150 추종 패시브 ETF들과 달리 지수선물만으로 헤지가 어렵다. 코스닥 150 ETF들의 경우, LP들은 ETF 매도와 함께 코스닥150 선물 등 지수선물을 활용한 헤지가 가능하다. 전체 익스포저를 한번에 잡을 수 있어 편리한 방법인데, 이 경우 LP 영향이 장중 현물시장에 미치는 강도는 제한된다. 그러나, 코스닥 중소형주가 다수 편입될 코스닥 액티브 ETF를 지수선물로 헤지하면 ETF 포트폴리오와 선물 간 베이시스 리스크가 커져 헤지 효과가 불완전해진다. 따라서 **코스닥 액티브 ETF들에 대한 LP 헤지에는 현물 바스켓 매수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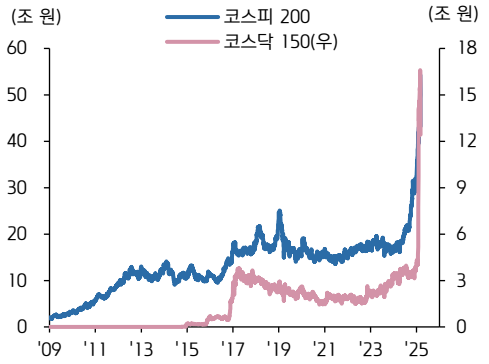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ETF 순설정과 LP/AP의 ETF 매도+주식 순매수의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 개별주식들은 수급에 따른(펀더멘털과 무관) 가격 변동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ETF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코스닥 중소형주에 새로운 수급 유입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TF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증폭될 여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코스피 vs. 코스닥 수급 주체별 거래대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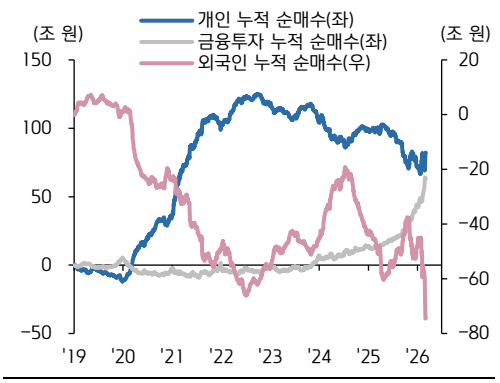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최근 2년 누적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추종 ETF AuM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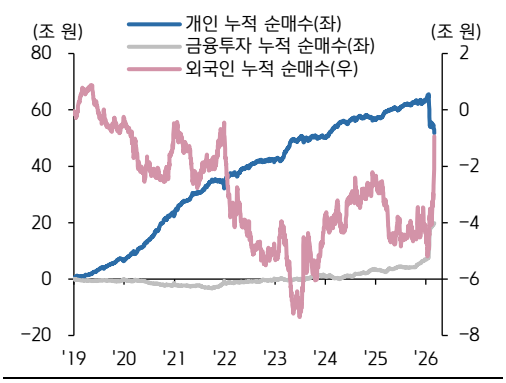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코스피 수급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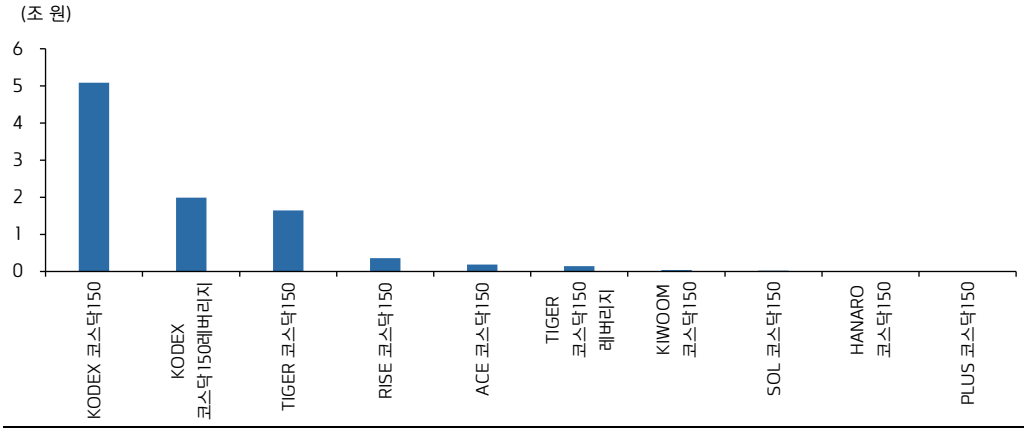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코스닥 수급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연초이후 코스닥 150 추종 ETF 누적 자금유입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실 사례를 통해 본 ETF가 증시 및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2026년 1월 6일, 코스피 시장에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가 상장됐다. 해당 ETF로는 **상장 당시 약 191억원 수준이던 AuM이 불과 한 달 만에 7,000억원을 돌파**할 만큼 폭발적인 자금이 유입되었다. 상장 첫 날부터 약 384억원을 순매수한 개인은 1월 15일~22일까지 매일 200억원 이상 순매수했고, 16, 19, 20일에는 각각 499억, 491억, 608억을 순매수했다.

그리고, 동 ETF가 AuM을 급격히 늘려가는 시기, **헤지 및 설정 수요가 ETF의 구성종목 바스켓 전반의 거래강도를 끌어올렸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장 전 120거래일 동안의 거래강도(거래대금/시가총액) 평균 대비 상장 후 ETF에 대한 개인 순매수대금 상위 8일 평균의 거래강도 비율 변화를 보면, 특히 뉴로메카(+21.3%p), 유진로봇(+14.7%p), 엔젤로보틱스(+6.8%p), 에스피지(+5.7%p), 두산로보틱스(+3.5%p), 유일로보틱스(+3.1%p)의 거래강도 확대가 두드러졌다. 또한 ETF CU 순설정 추이와 구성종목 금융투자 순매수 흐름도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평소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1~2%에 불과하거나, 시가총액이 1조 미만에 해당하여 유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이다. 이러한 **개별 종목들에 ETF 헤지 또는 설정을 위한 매수가 짧은 기간 집중되면, 펀더멘탈과 무관한 외생적 가격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저유동성 종목일수록 같은 자금 유입에도 개별주 주가 반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이 메커니즘이 상승장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금 유입기에는 상방 탄력을 키울 수 있지만, **같은 논리로 환매가 집중되는 구간에서는 하방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즉 ETF발 수급은 저유동성 종목에 새로운 유동성 공급원이 되는 동시에, 수급 충격의 전달 통로로서 변동성 역시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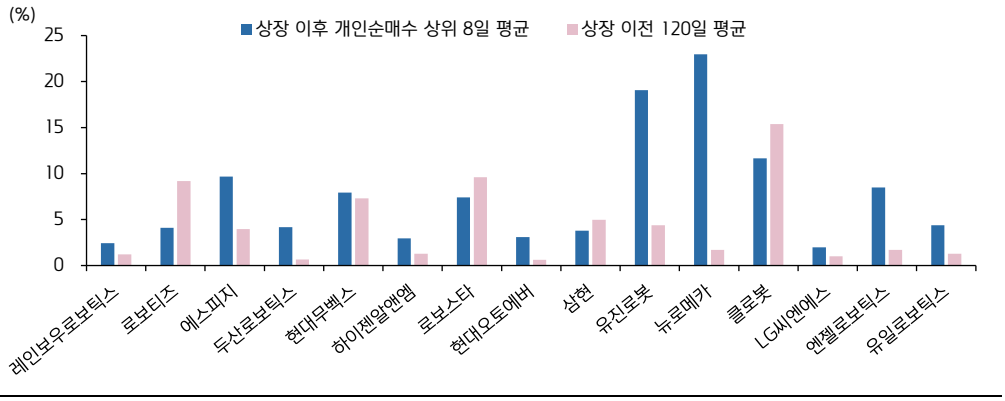
위 사례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제기한다. 1) 종목 간 수익률 동조화 강화, 2) ETF 자금 유입 및 보유 종목 점검, 3) ETF 상품 설계 점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ETF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2023, 김민기, 김준석)'에 따르면, **ETF 보유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수익률 동조화가 강화되고, ETF 거래가 활발한 구간에서 그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테마/섹터형 ETF 출시가 늘어나면서 유사한 업종 및 사업구조를 가진 종목들이 하나의 ETF에 함께 편입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ETF 편입 종목 간 수익률의 동조화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의 경우, ETF를 통한 자금 유입과 환매가 펀더멘탈과 무관한 수급 충격으로 작용**하며 주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서는 개별기업의 펀더멘털보다 바스켓 단위의 수급이 가격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는 개별기업 분석에 기반한 알파 창출 여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뿐 아니라, ETF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ETF 자금 유입 규모와 ETF 내에서 해당 기업의 보유 비중 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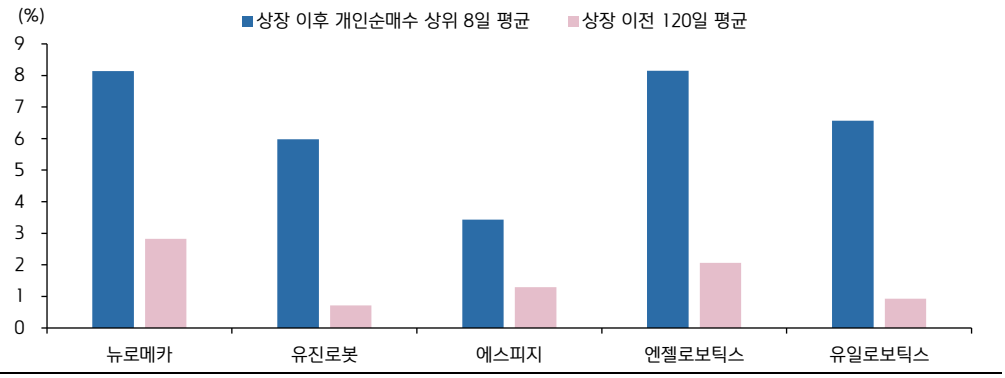
한편 ETF 설계 관점에서도, 저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상품은 초기 흥행이 오히려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편입 종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는 지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TF 상장 전후 거래강도(거래대금/시가총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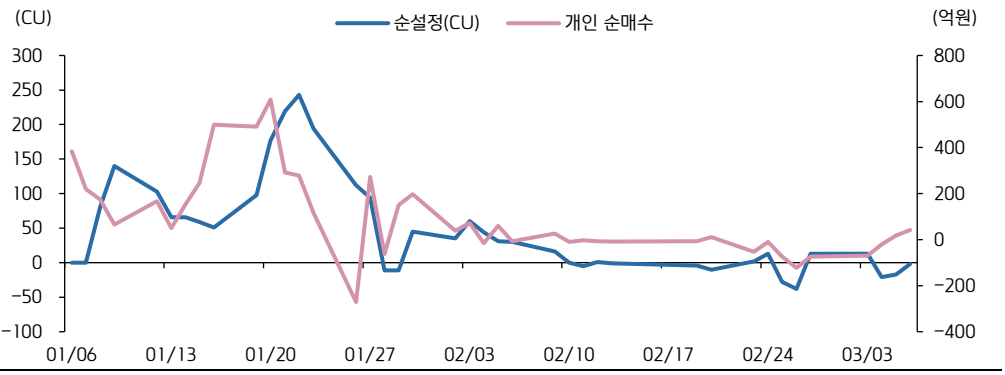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상장 전후 금융투자 순매수 강도(금융투자 순매수/거래대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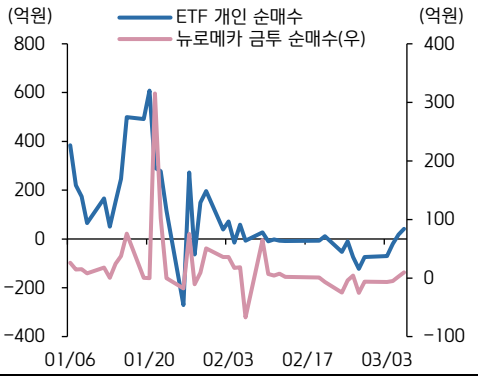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상장 이후 순설정 및 개인 순매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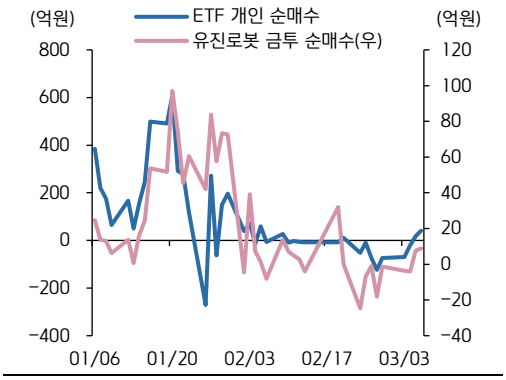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예탁결제원 키움증권 리서치

ETF 및 뉴로메카 개인/금융투자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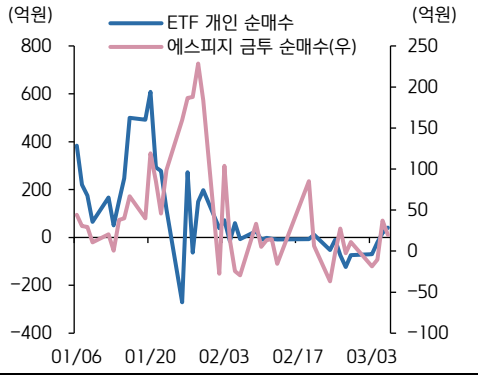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및 유진로봇 개인/금융투자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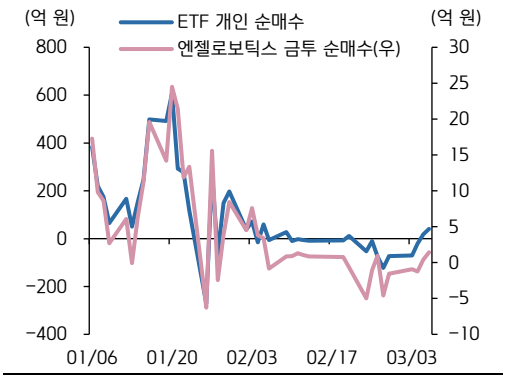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및 에스피지 개인/금융투자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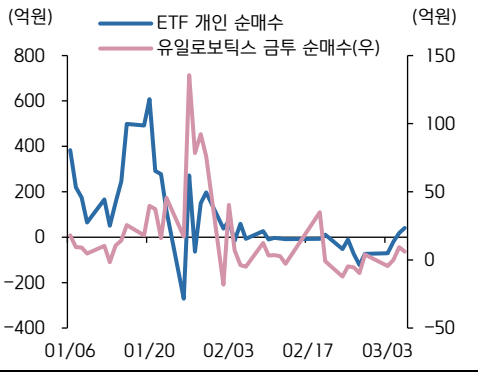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및 엔젤로보틱스 개인/금융투자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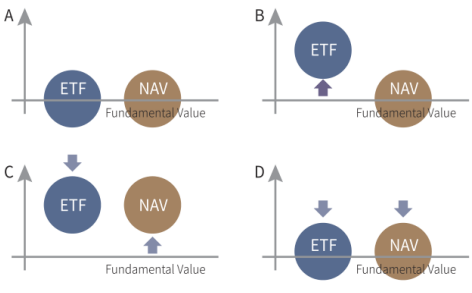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 및 유일로보틱스 개인/금융투자 순매수 추이



자료: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

ETF가 주식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료: Ben-David et al.(2018)의 Figure.1 인용

자료: 자본시장연구원(2023)

코스닥 액티브 ETF는 어떤 종목을 담을까?

이렇다 보니, **신규 출시되는 2종 ETF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될 지**를 둘러싸고 시장 관심도 뜨겁다.

먼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성장 산업을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우주항공·방산, ESS·에너지, 로봇, AI소프트웨어·모빌리티, 미디어·엔터·소비재 등 7개로 분류하고, 각 산업 내 주도주를 선별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성장주와 가치주 비율을 7대 3 정도로 가져가며 안정된 초과 성과를 추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 철학은 ▲장기 시장 성장성(TAM Growth)과 이를 이끄는 독점적 사업력 보유 기업, ▲세계적인 기술·서비스 경쟁력 보유를 통한 Price Maker 지위 확보 기업, ▲수익화 모델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이 나타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으로는 시가총액 300억 미달기업 중 매출액 50억 미달 종목과 관리 종목은 제외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2차전지·로봇, 반도체 소부장, 우주, 바이오 등 코스닥 대형 섹터를 중심으로 신성장 테마 종목을 발굴해 편입할 예정이다. 투자설명서 상 투자전략을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400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 요건을 검토하며,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거나 적자폭을 축소한 기업,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을 1차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후 주가수익비율(PER)이 동종 산업군 내 상위 50% 이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밸류에이션 요건을 적용하고, 해당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한 기업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우수한 30~40개 기업들을 최종 선별할 계획이다. 다만, 신산업·신기술 관련 기업 등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의 정량 및 정성적 분석을 통해 일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편입할 수 있다.

신규 출시 ETF 개요

구분	KoAct 코스닥 액티브	TIME 코스닥액티브
코드	0163Y0	0162Y0
상품 유형	주식형	주식형
운용사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기초(비교) 지수	KRX 코스닥 지수	KRX 코스닥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 (액티브)
총보수 (운용보수)	0.5% (0.45%)	0.8% (0.69%)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개인연금 100% /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투자설명서 기준, 변동 가능)	-	30~40종목

자료: KRX,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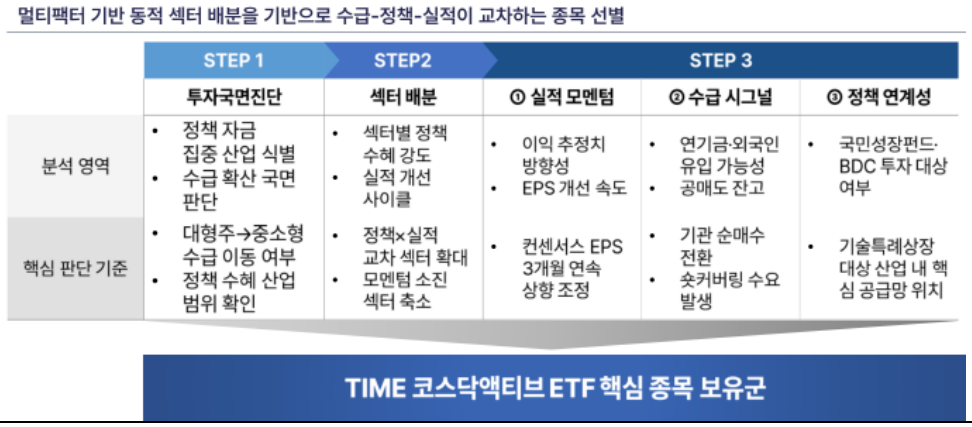
'KoAct 코스닥 액티브 ETF' 투자전략 및 예상 포트폴리오 섹터 비중

기준일 2026.02.26

산업	투자매력도
제약바이오	비만, 암, 뇌질환, 자가면역질환, AI/의료기기, 백신/예방치료제, 진단기기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 장비, 디자인하우스, 패키징, 소재 및 부품 등
우주항공/방산	발사체, 인공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핵심기자재 등
ESS/에너지	원전, 신재생(태양광, 풍력), 전력인프라, ESS, 전력기기, 전선 등
로봇	로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품(감속기 등) 등
AI SW	클라우드, 기업AX, SI,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자율주행SW 등
미디어엔터/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콘텐츠, 미용의료기기(필러 등), 화장품, 음식료 등

자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TIME 코스닥 액티브 ETF' 운용 전략



자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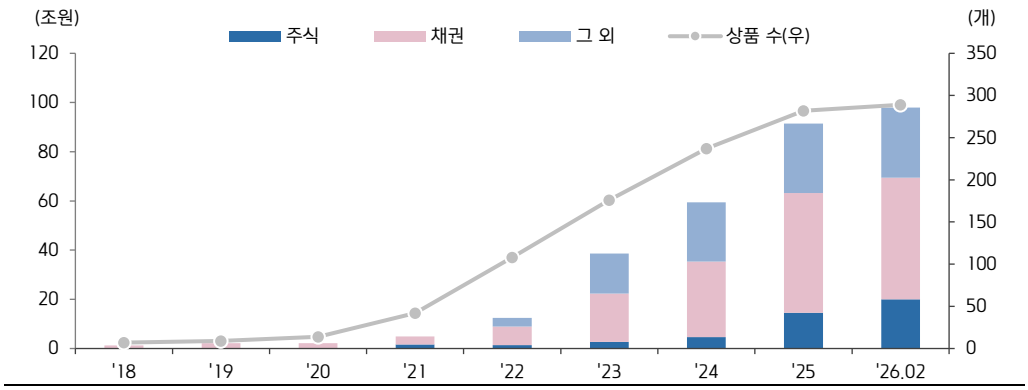
(부록) 한국 액티브 ETF 시장 확장 중

빠르게 확장 중인 국내 액티브 ETF 시장

국내 액티브 ETF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20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국내 액티브 ETF 총자산은 **올해 2월 말 98조원까지** 확장되어 곧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상품 수로 보면, 2020년 말 14개에서 현재 289개로 매년 그 수를 빠르게 확대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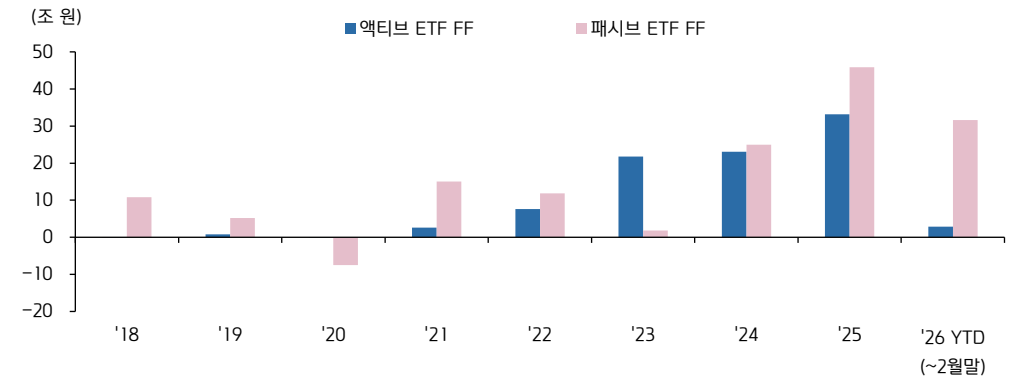
자산군별로 보면, **상품 수로는 주식형이, 순자산 측면에서는 채권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후로는 '주식형' 액티브 ETF 자산이 크게 늘었다. 2024년 말 4.7조에서 올해 2월 20조원으로 약 325% 급증했으며, 상품 수도 34개가 추가되었다.

국내 액티브 ETF 순자산 및 상품 수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액티브 ETF vs. 패시브 ETF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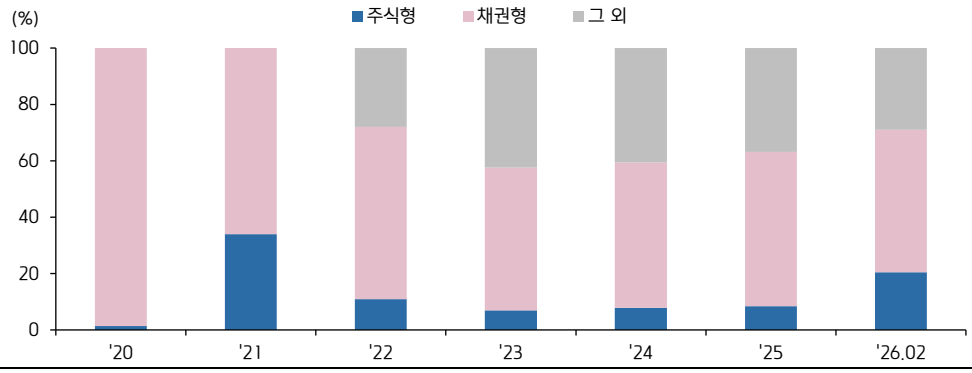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신규 출시 ETF에서 액티브 전략 채택 확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신규 출시하는 ETF 중 액티브 전략을 채택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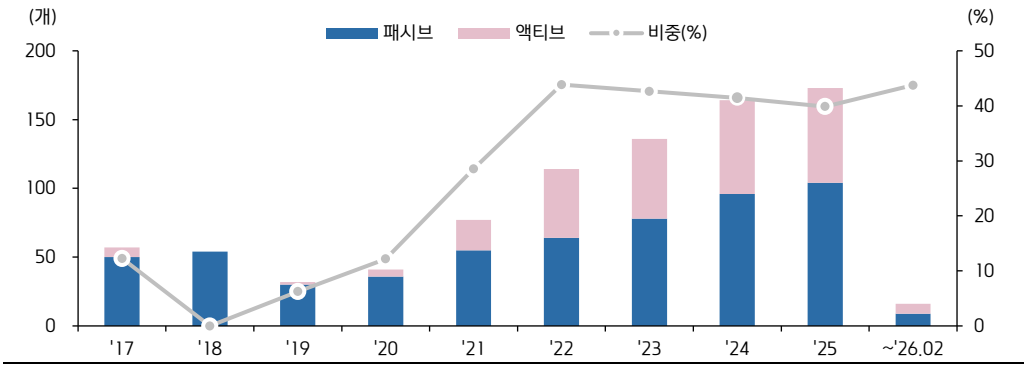
액티브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진 영향뿐 아니라 ETF의 운용 전략이 다변화되는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변화로 판단한다. 물론, 국내 액티브 ETF에는 미국과 달리 지수 요건(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규정)이 존재하지만 패시브 ETF과 비교할 때는 종목 편/출입, 비중 조정, 이벤트 대응 등 면에서 좀 더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국내 액티브 ETF 내 자산군별 비중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연간 신규 출시 ETF 중 액티브형 비중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국내 액티브 ETF 운용사 현황

현재 국내 운용사 중에서 액티브 ETF를 운용 중인 곳은 25개이다.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상품 및 순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이 상위에 기록 중이다(순자산 기준).

액티브 ETF만 출시하는 운용사도 다수 존재한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선도적이며, 이 외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더제이자산운용 등 총 8곳이다.

국내 액티브 ETF 보유한 운용사 현황

순위	운용사 명	브랜드 명	액티브 ETF 상품 수	액티브 ETF 순자산 (억원)	액티브 시장 점유율 (순자산, %)	ETF 전체 순자산 (억원)	전체 ETF 中 액티브 (%) (개수 기준)	전체 ETF 中 액티브 (%) (AuM 기준)
1	**삼성자산운용**	**KODEX**	49	410,659	41.9	1,574,883	21.3	26.1
2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30	183,306	18.7	1,219,631	13.5	15.0
3	**KB 자산운용**	**RISE**	24	98,062	10.0	261,451	17.8	37.5
4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41	97,082	9.9	300,486	38.7	32.3
5	**타임폴리오자산운용**	**TIMEFOLIO**	17	51,521	5.3	51,521	100.0	100.0
6	**신한자산운용**	**SOL**	18	42,141	4.3	151,475	26.1	27.8
7	**하나자산운용**	**1Q**	10	23,451	2.4	35,669	55.6	65.7
8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19	18,217	1.9	18,217	100.0	100.0
9	**한화자산운용**	**PLUS**	14	15,314	1.6	114,412	18.4	13.4
10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15	12,865	1.3	61,182	23.4	21.0
11	우리자산운용	WON	6	5,645	0.6	10,164	46.2	55.5
12	NH 아문디자산운용	HANARO	9	4,351	0.4	51,718	19.1	8.4
13	흥국자산운용	HK	4	4,008	0.4	4,934	66.7	81.2
14	DB 자산운용	마이티	3	2,307	0.2	2,901	60.0	79.5
1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마이다스	3	1,943	0.2	1,943	100.0	100.0
16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에셋플러스	9	1,783	0.2	1,783	100.0	100.0
17	비엔케이자산운용	BNK	3	1,467	0.1	2,346	50.0	62.5
18	현대자산운용	UNICORN	4	1,423	0.1	1,423	100.0	100.0
19	교보악사자산운용	파워	2	1,347	0.1	3,460	40.0	38.9
20	아이비케이자산운용	ITF	1	1,076	0.1	1,908	33.3	56.4
21	대신자산운용	DAISHIN343	1	697	0.1	1,361	50.0	51.2
22	브이아이자산운용	FOCUS	1	553	0.1	1,348	25.0	41.1
23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VITA	2	302	0.0	302	100.0	100.0
24	트러스톤자산운용	TRUSTON	2	299	0.0	299	100.0	100.0
25	더제이자산운용	더제이	1	101	0.0	101	100.0	100.0
	합계		**288**	**979,921**	**100**	**3,876,403**	**26.9**	**25.3**

자료: KRX,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6년 2월 말 기준, 액티브 ETF AUM 순 정렬

금융당국,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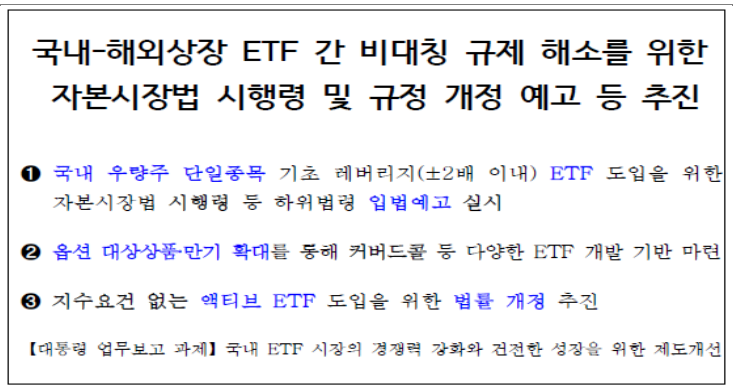
복잡해진 시장 환경 속에서 액티브 전략의 중요성 더 커질 전망

한편, 지난 1월 30일 금융위는 국내상장-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그 중 액티브 ETF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었다. 바로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이다.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은 그 동안 액티브 ETF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오랜 시간 논의되어온 사안이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가 일반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상 ETF는 반드시 특정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돼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국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패시브 ETF는 기초지수와 상관관계 0.9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타 주요국 대비 운용을 통한 적극적인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ETF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개정 시 국내도 더욱 다양한 전략이 반영된 액티브 ETF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안의 경우는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며, 이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금융위원회,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추진



자료: 금융위원회

액티브 전략 활용이 높을 ETF 상품

유형 분류	액티브 전략 활용이 유리한 이유	해당 ETF 예시
옵션 기반 ETF	시장 변동성에 따라 옵션 전략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JPEI, JEPQ(JPM), PAPR(Innovator) 등
Defined Outcome ETF	옵션의 만기, 목표 손실/수익률 구간 조정이 필요	Innovator Defined Outcome ETFs, Allianz Buffered ETFs 시리즈
전술적 자산배분형 ETF	금리, 인플레이션, 리스크 온/오프에 따라 자산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	PAA(Cambria), NTSX(WisdomTree)
신성장 테마/섹터 ETF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AI,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혁신기술)에서는 패시브 지수로 팔로우업이 어려움	BLOK(Amplify), BAI(BlackRock), ARKK(ARK)
고정수익형 ETF	채권 듀레이션, 크레딧, 환율 리스크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 필요	BOND(PIMCO), TOTL(SPDR), FLEX(FlexShares)
롱/숏 구조 ETF (Pair형 등)	종목 간 상대가치 판단과 리밸런싱, 지속적인 사람의 판단 및 알고리즘으로 조정 필요	TSLAvsF (BattleShares), STKD 100% COIN/NVDA 등
절대수익형/ Risk-Parity ETF	벤치마크 없이 하방 방어 + 제한적 상방 전략 목표 → 액티브 운용 필요	SWAN(Amplify), TCAF(Truist)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부록) 미국 내에서도 커지는 액티브 ETF 영향력

ETF 시장 확장으로 인한 운용업계 변화

ETF 시장 확장이 지속되면서 액티브 ETF는 액티브 펀드의 영역을 서서히 대체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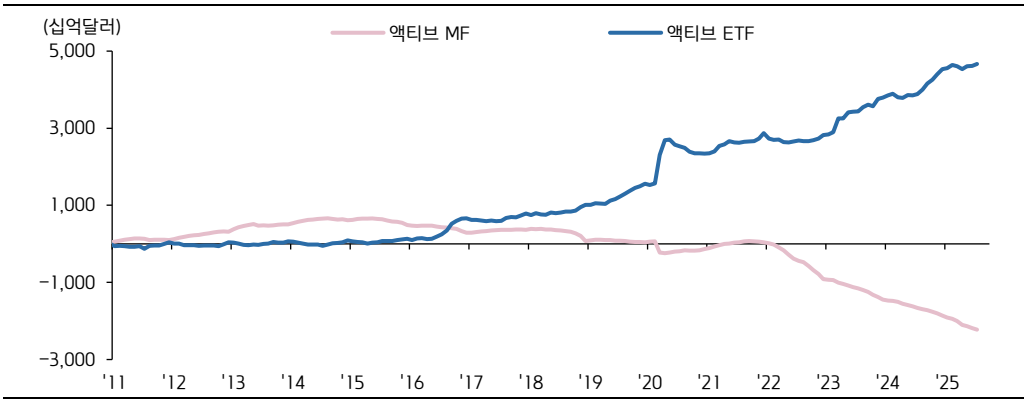
Deloitte는 미국 액티브 ETF 자산이 2035년 11조 달러로 현재 대비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JP Morgan은 전세계 액티브 ETF 시장이 2030년 6조 달러, BlackRock은 4.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신규 ETF에서 액티브 전략 채택 편중, ▲대형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ETF 시장 진출, ▲투자자 수요 증가를 주된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이미 많은 전통 액티브 운용사(Capital Group, JPMorgan, Eaton Vance, MFS 등)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or 뮤추얼펀드 및 SMAs, 헤지펀드 등에서 전환)하며 ETF 시장에 진입했고, 블랙록, 찰스슈왑 등은 ETF를 통해 연금 솔루션, 고도화된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사모 대출, 인프라 투자 등 전통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대체 자산에 대한 ETF 상품이 출시되며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선택지도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액티브 ETF들의 수익성도 최근 빠르게 개선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ETF 운용사 매출에서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540% 성장(연평균 성장률 45%)하여 5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급격한 확장에 힘입어 전체 매출 내 액티브 전략의 비중은 2020년 10%에서 2025년 약 26%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액티브 ETF의 매출 기여도가 상승한 점은 지난 5년 간 액티브 전략 출시가 급증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신규 진입자가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만한 규모(Scale)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용화된 베타(Commoditized Beta, 단순 지수 추종)' 부문에서 벗어나 액티브 ETF 전략으로 시선을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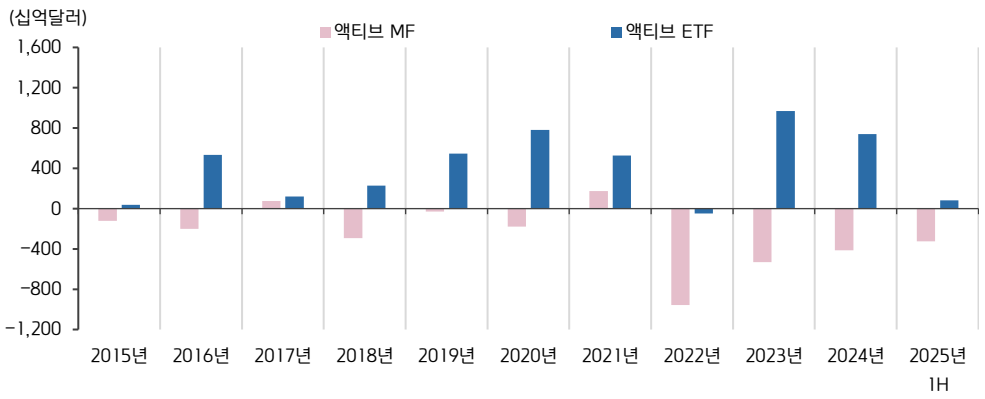
ETF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관 및 리테일 투자자들의 투자 플랫폼 역할 수행 중이다. 기존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에서 이제는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구조화 전략, 액티브, 금리형 상품, 디지털자산 등으로 상품군이 진화 중에 있다.

미국 액티브 뮤추얼펀드 vs. 액티브 ETF 누적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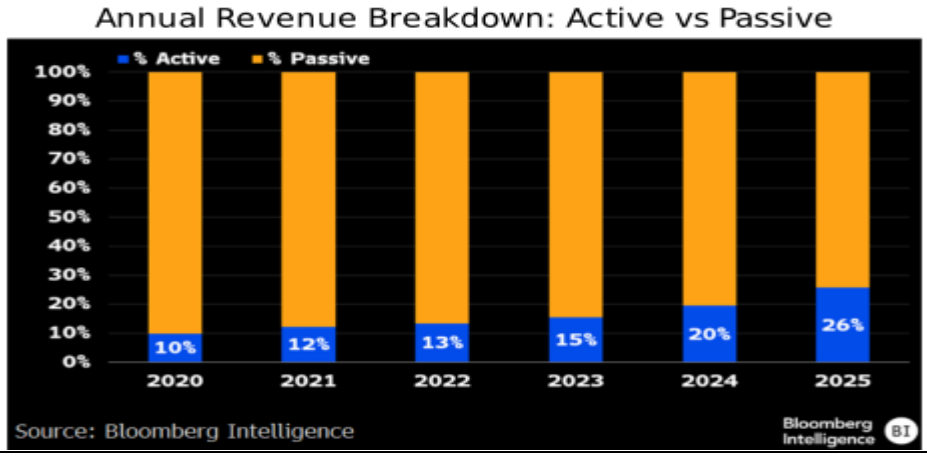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액티브 뮤추얼펀드 vs. 액티브 ETF 자금유입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25년은 상반기 기준

액티브 ETF, 5년 만에 업계 매출 비중 10%에서 26%로 확대



자료: Bloomberg Intelligence,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03 월 09 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 중 '두산로보틱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